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10월 14일(화) 16시: 연구원 사무국 주간회의
- 10월 17일(금) 16시: 연구원 사무국 주간회의

■ 연구원 소식

- 징검돌 프로젝트 안내 드립니다.

한 권의 책은 누군가에게 세상을 여는 열쇠가 되고 외로운 하루의 벗이 되기도 합니다.

‘징검돌 프로젝트’는 인문학의 숨결이 닿기 어려운 지역에 책을 전달해 책이 필요한 분에게 ‘생각의 징검돌’이 되어주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여러분이 모아 주시는 한 권 한 권이 따뜻한 위로와 울림으로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2025년 송년회까지 진행될 이 사업은 지역 내 유관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기부활동을 통해 회원과 지역 사회가 보람과 긍정적 변화를 제공받고자 합니다.

본 사업 도서 기증 문의는 연구원 에스엔에스나 유무선 통신으로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 담당자는 송정현 연구기획실장입니다.

- **전주시 인문주간 행사 연구원 인문강좌 안내 (10월 17일)**

주제: 번역서와 외국인에게서 배우는 한국 언어: 가진 것이 없어 가능했던 퍼플오션

강사: 유경민(전주대 국어교육과 교수)

일시: 2025.10.17.(금) 16시

장소: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

강의 줄거리

- 훈민정음 창제 이후 국어학 연구의 주를 이루었던 '불경 번역서'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번역 성경' 연구를 위한 국가 프로젝트를 설계했던 과정을 설명하며 정통 국어학계에서의 퍼플오션 전략 성공 스토리 소개.
- 불경 연구 방법론을 기반으로 성경 연구의 길을 연 것은 경쟁 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를 선도한 어나더 레벨(another level)의 혁신이었음. 공백이었던 근대국어 연구의 중심에 한국어 번역 성경 자료가 있게 됨.
- AI 시대 인문학 연구 방법을 숙고하는 계기가 된 옥스퍼드대학과의 협업 소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왜 훈민정음 강의를 해달라고 했는지, 외국 학생들의 감동적인 한글/한국어 학습법을 소개하며 시대를 관통하는 인문학적 태도를 함께 탐구함.
- 강의를 통해 언어를 제대로 알게 되면, 말맛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지고, 사고의 깊이가 달라짐을 깨닫게 될 것임.

○ **문 의 : 한국고전문학연구원 사무국**

※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정에 따라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양강 댐 완공 - 1973. 10. 15



1972년 11월25일 소양강댐 진수식에 참석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소양호를 굽어보고 있다.

소양강 댐에 대한 아이디어는 일찍부터 나왔다. 이미 1957년경부터 한국전력은 소양강에 수력 발전용 댐을 만들 구상을 하고 있었다. 이는 분단의 비극에서부터 유래하였다. 해방 이후 분단이 고착화되자, 북한은 미군정이 전기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기를 끊어버렸던 것이다.

아득바득 건설한 화력발전소들도 전쟁에 잣더미가 된 게 대부분이었던지라 한국의 전력 사정은 지극히 오랫동안 캄캄함이 지속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한강 상류 소양강에 눈길이 갔던 것이다. 결국 1965년 한일기본조약 조인에 따라 받은 대일 청구금 중 일부를 소양강댐 건설에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1967년 그 첫 삽을 뜨게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3년 준공식에서 이렇게 말하며 흥분했다.

“여기, 또 하나 우리 인간이 대자연에 엄청난 도전을 하여 인간의 의지로서 자연을 극복하고 개가를 올린 산 증거를 우리는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댐은 사력(砂礫) 공법의 댐으로는 동양에서 가장 큰 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사가 우리의 기술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기술로서 이렇게 훌륭하게 되었다는데 대해 나는 기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소양강댐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만이 아니다. 정부의 독려 하에 매일 1천여명의 인력이 투입되었고, 작업은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내내 이어졌다. 산을 깎고 언덕을 발라내는 난공사 속에 흙더미에 깔리고 발을 헛디뎌 벼랑으로 떨어지고 폭발에 날아간 사람이 서른 일곱 명에 달했다. 물론 이것도 공식적인 수치일 뿐이다. 그 건설의 주역들 스스로 “수백명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오지 중의 오지였던 소양강 댐 공사 현장에서 죽어간 이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현장에서 죽어갔으나 위령비에 이름 석 자조차 올리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생면부지의 고장에 와 목숨을 걸고 일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이야말로 소양강댐이라는 대역사의 주인공들이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이들은 바로 소양강 주변에서 살던 주민들이다. 평생의 터전이 수몰지구로 지정되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던 1만 8천 명의 주민들의 한숨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 시책 앞에서 자신의 생활 터전을 ‘당연히’ 그리고 별 보상도 없이 내주고 생판 낯선 땅에서 맴돌다 스러져간 민초들의 사연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흡사 재방송처럼 전국 방방곡곡으로부터 전해지고 있음도 함께 기억하자.